1999년8월 4일(수요판)【1】
1994.11.4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시민사회를 이끄는 사람들③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최근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산지역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시민운동단체를 실어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97년 미군의 부당한 군산공항 민항기 사용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면서 결성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이하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8년 5월 8일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운동을 비롯해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운동, 미군 공여지 해제촉구운동, 소음피해 해결,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마다 미군기지 앞에서 금요집회를 가지고 있다.

"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모임은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행위와 사고를 조사하여 피해에 대합 법적 대처와 재판권행사등 미군범죄 근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현재 군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자체가 부당한 협정이기에 이 협정의 원인인 군산공항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군산 미군기지로부터 군산공항을 반환받는다면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고 증편이나 사용시간에 대한 규제를 미군에게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군기지는 현재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땅이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 바로 미군기지이다. 이와 함께 공여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토지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되어 있는 등 각종 문제가 산재해 있다.

더구나 최근 군산미군기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방부에 반환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보호조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징발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미군공여지로 양도된 경우의 상당수는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유주에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땅 소유주가 공여사실을 모르는 것은 물론 해당 관청도 공여사실을 아예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민아 간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각종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마다 미군기지 앞에서 금요집회를 가져왔는데 벌써 80회가 넘었다.

특히, 군산 미군기지주변 신하제 마을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가옥균열등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집단소송을 통한 소음피해 해결은 물론 환경사각지대인 미군기지와 기지주변에 대한 미군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소음측정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1일까지 고정식3지점(하제,신하제,남수리)과 이동식 10개지점에 대해 1차로 끝났으며 8월중에 2차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음피해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9월중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의 청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